

“문명의 편리함 버리자... 세계가 온난화 대응 나설때”



바다가 인류를 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해수면이 높아지고 바다온도가 상승하는가 하면, 태풍이 세지고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는 등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재앙이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바다 생태계도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어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엄습한다. 사진은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바다쇼 체험 현장. 바다 사막 등 기후 온난화를 위한 바다쇼 조형 상황을 관람객들이 알 수 있도록 꾸몄다. /여수=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바다가 이상하다 <11>

기후변화 위기 나라가 전하는 메시지



■투발루 관광청 직원

“해마다 수도 범람사태 빈번 불가사리 공장 등 대책 고심”

투발루·키리바시 등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만난 기후변화 취약국 주민들은 전시관에서 접하는 40년 뒤 가장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것이라는 섬뜩함에 가슴을 졸이고 있다. ◇“해마다 잠기는 땅이 많아진다”=파우 피 아블레(여·24) 투발루 관광청 공무원은 인터뷰가 지속되면서 국민이 처한 심각한 상황과 선진국의 안일한 대응 자세 등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였다. 파우피씨는 “매년 2월 해수면 수위가 최고 조로 달하는데 이때 국토의 많은 부분이 바닷물에 잠긴다”면서 “인구 4000명이 사는 수도 푸나푸티에 범람 사태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계속 바닷물에

잠가다 보니 과거의 땅들이 많이 사라진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지도상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도. 국가적인 대책으로 10년 전부터 맹그로브 나무를 지원받아 지속적으로 심는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며 모래를 빨아 들여 퍼져가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불가사리 공장 설립을 구상하고 있다는 내용도 귀뜸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투발루가 바닷물에 완전히 잠겼을 때 국민들이 뉴질랜드로 이주할

대로 알릴 수 있는 여수박람회 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키리바시, 해수면 상승과의 싸움=태평양 양 중부의 키리바시는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처한 섬 나라다. 적도를 따라 펼쳐진 국토 일부는 이미 바다 밑으로 잠겼다. 가장 높은 곳도 해수면보다 겨우 2m정도 높은 게 고작이다.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키리바시 국가관의 네마니 테바나 관장은 “키리바시의 상황은 매우

아지면서 식수나 기타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힘들어지자 많은 해안가 마을 주민들이 내륙으로 이주해오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 “해안침식도 진행돼 내륙의 풍부한 미네랄과 토양양분이 사라지고 있으며 특히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바닷가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져 일부 해변의 경우 모래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바위만 남아 있는 곳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세

■여수박람회 키리바시 국가관 관장

“100년안에 국토 사라질까 우려 농작물 생산 줄고 물 사용 힘들어”



심각하며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키리바시는 향후 50~100년 이내에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미 세 개의 섬이 사라졌고 더 많은 섬들이 매일 위협받고 있다”면서 절박함을 호소했다. 키리바시 정부도 해변 인근 주민을 내륙지역으로 이주시키려는가 하면, 인공섬 건설, 다른 섬을 사들여 이주시키는 정책 등을 구상하거나 검토중이다. 이미 바닷물에 국토가 잠기면서 농작물 생산도 기존에 비해 훨씬 힘들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해안 침식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이에따른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네마니 관장은 “물의 염도가 지나치게 높

게은행과 NZAID (The New Zealand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등 연안 보전에 힘쓰고 있는 여러 단체의 후원을 받아 방파제 건설 및 유지, 맹그로브 나무 심기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소개했지만 한 나라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점에서 지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을·오광목기자 dok2000@kwangju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이 기획 시리즈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두권의 책서 본 메시지

북극 얼음지도 20년만에 21%→5% 해수 범람...투발루 섬 2개 사라질 것

지구 온난화를 다룬 책은 수없이 많다. 이 때문에 새로운 것 없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의 위기를 담은 이미지와 사진, 각국 정부의 수동적 자세 등을 통계를 사례로 곁들여 전달하는 책들은 독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에 충분하다. ◇북극 얼음 빨리 녹는다=영국 BBC 자연다큐멘터리팀 ‘프로즌 플래닛’팀이 4년여에 걸쳐 극한의 얼음세상 북극과 남극의 환경을 담아낸 프로즌 플래닛은 지구 온난화가 극지방에 미친 영향을 엿볼 수 있다. 책은 캐나다 허드슨만의 사례를 들어 얼음을 발판 삼아 사냥하는 북극곰의 경우 지난 20년간 얼음이 일찍 녹는 바람에 사냥할 수 있는 기간이 3주나 줄었고 몸무게도 15% 빠졌다고 지적한다. 영구동토가 녹으면서 땅이 푸석푸석해지고 허물어지는 사례를 담은 사진도 적나라하다. 얼어있던 비탈에 산사태가 일어나고 암석이 쉽게 붕괴하는 한편, 얼음으로 고정돼 있던 나무들이 불안정해지면서 위험한 각도로 기울어 소위 말하는 술 취한 숲(drunken forest)을 만들어내는 사례도 덧붙였다.



①프랑스 사진작가 안 아르투스 베르 트랑의 ‘눈 없는 킬리만자로 정상’. ②영구동토가 녹고 해변의 후퇴가 겹치면서 바다로 쓰러지고 있는 알래스카 시슈미레트 건물. 기후변화가 미친 영향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③사진 촬영 뒤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빙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델리 펠린. (사계절출판사·공리 제공)

미국 콜로라도 국립설빙자료센터가 내놓은 1980년 9월 780만km에 달했던 해빙이 지난 2007년 9월에는 430만km로 줄어든 것이나 미국항공우주국이 2007년 만든 북극의 얼음 지도를 통해 7년 이상 된 얼음 비율이 20년 만에 21%에서 5%로 줄었음을 소개한 내용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기후 난민, 해수 범람 피해, 지구 교통=프랑스 환경운동가이면서 환경부장관을 지낸 이브 코셰의 ‘불온한 생태학’도 지구 온난화에 따른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한다. 투발루 섬 2개가 해수면 상승으로 바다 아래로 잠기고 무분별한 인의 채굴로 남태평양 외딴 섬 나무루가 거대한 광물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리는 구체적 사례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와 메탄 농도가 자연적 변동 수준을 현저히 넘어섰고 현재 정책과 개발 방식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제시한 객관적 통계 자료 등은 사안의 심각성을 환기시킨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비세는 아파트옥상 · 슬라브 주택 · 빌라 · 공장의 희소식

www.phijibung.com

고질적인 슬라브지붕 누수 방수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가?

공정직업
· 완벽한 시공, 확실한 AS보장
· 전국최대시공팀 직접운영
· 시공을 원하는 분! 출장전적 무료!!

시공전 시공후

국내최초 특허출원번호 69701호

슬라브 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1.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료가 최소 30% 정도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필요도 사용하지 않는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 이상간다.
5. 정독대, 발레 건조대로 사용할 수 있다.
6. 고추는 땅에서 말리는 것보다 3~4배 더 잘 말린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요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표판 완벽하게 방수 시공한다.
8. 강판바닥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미터로 다시 뿔어서 물바람이 원할하다.

단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 방수 시스템

2시에 우리측사의 온도가 33도였는데 이정도 온도라면 집안에서는 못낼정도로 인데 지금은 시원하고 선종기 없어도 생활에도 배수도 100미터로 새로 뿔었기 때문에 아무리 폭우가 와도 물바람걱정 걱정이 없습니다. - 황금국 -

방수를 한 것이 벗겨져서 무엇을 할까 고민중에 방수처리도 완벽하게 하고 슬라브 지붕도 그대로 보존되는 이종호씨가 왔을 뿐 아니라 반 영구적이라 시공을 했을때 역시 슬라브 지붕세는데는 강판이 최고입니다. - 임봉순 -

슬라브 강판을 한지 4년이 되었는데도 색도 안 변하고 여름에 물에서 말고 돌아오면 찻때, 산신하니 시원하고 선종기 안들어오고 되고 겨울에는 외출이 많고 건조비도 겨울 두드림 넣어 놓으면 전보다 3~4배 남으니 연료비가 절감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성순음-

한농 칼라강판 지붕개량 문의 061)335-8842 / 010-4024-4005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거나 덤핑전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